



## 고려해운

창립 55주년 재도약 다짐

창립 55주년을 맞은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이 4월17일 창립기념식과 체련대회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954년 창립된 고려해운은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는데 열악했던 초기 해운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55주년을 맞은 2009년 현재, 명실상부 전문 정기선 서비스 선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려해운은 2009년 4월 현재 세계 100대 선사 중 선복량 순위 35위(3만 1500TEU)를 유지하고 있는 중견선사로 아시아역내 Leading Carrier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한-일 항로의 경우 일본내 30개 주요 포트를 직항 서비스 중인 바 메인 포트 주 3~4 항차 정요일 서비스를 근간으로 다수의 일본 로컬 포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중 항로에서는 북중국 주요포트에 주 2~3항차 직항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중국항발 수출입 화물 운송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국내 물동량 취급 최다 항만인 상하이항에서 2008년도 마켓 점유율 13.3%로 40여 개 서비스 선사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동남아항로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항로를 주 2~3항차 서비스 제공 중이며 아시아역내 서비스 선사 중 물동량 취급에 있어서 수년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북중국 발 인도, 중동, 파키스탄 직항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존 안정적인 아시아역내 서비스 외에 항로 다각화와 서비스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고려해운은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08년 9월말부로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2월에는 전자 S/R 시스템을 도입하여 B/L 입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WEB BOOKING, E-D/O,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률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대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고객만족센터"를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선박과 컨테이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2년에 개장 예정인 총면적 840,000㎡ 규모의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사업에 참여하는 등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고려해운은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최적화된 물류 네트워크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2008년 7월에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신흥성장 국가에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였고 올해 1월에는 중국 상해 단독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대중국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였다.

한편 고려해운 관계자는 "앞으로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네트워크와 반세기 이상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 물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초우량 정기선사로 발돋움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려해운은 4월15일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이 정한 물류 보안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자국 세관이 이를 공인해주고 통관 절차상 우대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기업경영안정성, 법규준수도, 기업운영시스템, 시설 안전관리, 물품취급절차 관리, 인적자원 관리, 거래업체 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8개 부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AEO공인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려해운은 AEO 공인업체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 현장 실사 및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AEO인증을 받게 됐다. 현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고려해운을 포함하여 삼성전자, 코오롱유화, 부산신항만공사 등 총 9개이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사내 유관조직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비한 결과 국내해운사 최초로 관세청으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었고 향후 AEO인증사로서의 이점을 활용, 신속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대양상선

매출 1조원 돌파

대양상선(대표 정유근)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매출이 1조원이 넘는 선사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대한해운, SK해운, 유코카캐리어스 등 6개사에 불과한데 대양상선이 7번째로 매출 1조원대 선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대양상선이 최근 발표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양상선은 지난해 1조 260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무려 74%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원가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대비 5% 감소한 584억원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외수익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무려 174%나 증가한 1892억원을 달성했다.

## 대한통운

9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위임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은 4월10일 노조와 무교섭으로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단협에 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했다. 노조와 회사 측은 2000년부터 9년 연속으로 무교섭 임단협 체결을 이어가고 있다.

4월9일 열린 임·단협 체결식에는 이례적으로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참석해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사대표인 이국동 사장과 차진철 노조 위원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국동 사장은 "금호아시아나 그룹 편입 이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노사가 하나되어 회사를 위해 노력하는 고유의 문화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통운은 1961년 노동조합 설립이래 48년간 무쟁의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노사문화를 인정받아 96년부터 4회 연속으로 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대한해운

1억6,00만\$ 외자유치에 성공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회장)은 최근 일본 금융권으로부터 약 160억엔(미화 약 1억6000만달러) 상당의 외자유치 도입에 성공했다.

대한해운은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음으로써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대-내외의 근거 없는 소문을 공식적으로 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금



유동성에도 숨통을 틔웠다.

이와 함께 대한해운은 운영자금 조기 확보 및 자금수혈을 위해 국내 A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ABL(자산유동화대출) 발행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세계적인 금융경색 이후 국내선사로는 처음으로 선박매매를 통한 외자유치에 성공함과 동시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외자유치 도입에 성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해운시황 악화로 선박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국내의 선사들이 쉽게 선박매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본 프로젝트의 성공은 높이 살만하다.

한편, 대한해운 관계자는 “금번 외자유치 도입형식은 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본 선박들은 기존의 운영형태인 POSCO 전용선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라 밝혔으며, “향후 불안정한 해운시황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회사채 및 ABS 발행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장금상선

영업이익 9배 급증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금상선이 최근 발표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229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49%의 매출신장을 기록했으며 이와 같은 매출 증대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807% 증가한 323억원을 달성했다.

2007년 영업이익이 36억원이었으므로 거의 9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난 셈이다. 당기순이익은 지

분법이익을 비롯해 외회환산수익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284% 증가한 549억원을 달성했다.

## 조강해운

영업이익 654% 증가

조강해운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65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해운(대표 오학균)이 최근 발표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 증가한 2,64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54% 증가한 6억6,000만원을 달성했다. 조강해운이 영업이익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조강해운은 지난해 판관비를 20%나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외수익 대비 영업외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7.5% 줄었다.

## 천경해운

청도 컨테이너항로 개설

지난해 10월 부산 - 군산 - 연운항간 주 1항차 서비스를 개설했던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이 6개월 만에 청도를 새로운 기항지로 추가하면서 청도항로를 부활했다.

천경해운은 4월 22일부터 기존 부산-군산-연운항 - 부산 항로에 청도를 기항지에 추가해 부산 - 군산 - 연운항 - 청도 - 군산 - 부산으로 개편해 운항을 시작했다.

과거 청도 항로를 운항하다가 중단한 바 있는 천경해운은 현재 타선사의 선박을 차터해서 울산·부산 - 청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산 - 군산 - 연운항 항로에 청도를 기항지에 추

가함에 따라 청도 항로를 부활하게 됐다.

천경해운은 부산 - 군산 - 연운항로에 327TEU 급 컨테이너선 '한진부산(Hangjin Busan)'호를 첫 투입해 운항했으나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698TEU급 컨테이너선 'OSG BEAUTEC' 호로 교체 투입했고 3월 중순부터는 653TEU급 컨테이너선 'EAGLE SKY' 호를 교체투입해 운항하고 있다.

설우식 천경해운 상무는 “기존에 카페리를 이용하던 하주들과 지자체에서 청도 항로 개설을 요구해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청도를 최종 기항지로 확정하게 됐다. 그동안 군산 - 연운항은 주로 수출 화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청도를 추가함에 따라 수입물량도 일부 기대할 수 있는데다가 청도-부산간 수입화물, 군산 - 부산간 연안운송 물량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군산 - 연운항 항로가 개설된 이후 전남도내 소제 식품, 석재수입회사, 전북도 인근지역의 전자, 전장회사 등이 물류비 절감의지와 맞물리면서 이번에 청도항로가 새롭게 열리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군산항에 청도항로가 새롭게 열림에 따라 그동안 인천, 평택 등을 이용해왔던 LG필립스, THN, JHN, 대두식품, 석재 수입업체 등의 하주들이 이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 물동량은 월 1000TEU, 연간 1만TEU 이상에 달해 연간 2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군산시의 설명이다.

LG필립스 등의 하주들은 “그동안 군산 - 청도간 카페리를 이용해왔는데 지난해 4월 운항이 중단되면서 인천, 평택을 이용해왔다. 이제 군산 - 청도항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니 물류비 절감은 물론, 운송시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홍보와 컨테이너 인센티브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군산 - 청도간 신규항로 개설도 항로 개설 요청과 수차례의 면담 등의 성과로 이루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규항로 개설과 물동량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태영상선

### 영업이익 3배 늘어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상선이 발표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9% 증가한 1,06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증대에 따라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무려 261% 증가한 38억원을 달성했다. 2007년 태영상선의 영업이익이 10억원이었으므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영업의 수익에 비해 영업외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52% 감소한 1억 4,000만원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 한진해운

### 'CKYH 얼라이언스' 최고 경영자 회의 개최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속해있는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인 'CKYH'는 4월8일, 9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한진해운의 주재로 최고 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을 비롯해 중국 장리앙 코스코 부회장, 일본 마에카와 히로유키 케이라인 사장, 대만 프랭크 루 양밍라인 회장



등 각 사 대표 경영진과 실무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CKYH얼라이언스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 해운 시장의 전망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며 태평양 및 유럽 항로 등 동·서 기간항로의 서비스 합리화, 해상 및 육상 운송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터미널 장기 운영 전략 및 선박과 터미널에 대한 공동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펼쳐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03년 세계 최대의 전략적 해운 제휴그룹인 CKYHS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다양한 스케줄 확보, 운항 정시성 제고, 운항 원가 절감 등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한진해운은 4월16일 무사고 안전운항 공로자 8명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무사고 안전운항공로자 기념패는 1999년부터 시작됐으며 선기관장 중에서 휴가를 제외한 순수한 승무경력 중 5년 단위로 누적된 무사고 운항 경력만을 합산해 명예 해상직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년 무사고 19명과 5년 무사고 77명의 선기관장이 선발돼 이 기념패를 수상했다.

올해 무사고 안전운항 공로 기념패는 10년 무사고 공로자로 김용수 선장, 김택용·전성기 기관장 등이 수상했고 5년 무사고 공로 기념패는 강대

하·정경배 선장과 이진행·허근·김덕태 기관장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4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사관 워크숍을 개최해 변화하는 해운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상직원들의 자발적인 안전 결

의문 발표를 통해 해상 안전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홍아해운

인천-일본간 직항서비스 개시

홍아해운(대표 이윤재 회장)은 5월부터 천경해운의 슬롯을 빌려 인천과 케ihin, 나가코, 한신지역을 연결하는 직항 서비스를 개시했다.

홍아해운은 그동안 부산항환적을 통해 인천/일본간을 서비스했지만, 이번 직항서비스를 통해 수송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선사가 인천/케ihin·나가코간에서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작년 10월초 씨엔라인이 케ihin 항로의 컨소시엄을 이탈하면서 인천 기항을 중지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 한국선급

인도 뭄바이지부 개소식 개최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이 4월16일 인도 뭄바이에서 김동연 총영사, Mr.S.Hajara SCI 회장, Capt.Anand 인도선급 회장, M.A.Phatak ABG 조선소 사장 등 인도 해사계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선급 뭄바이 지부 개소식을 갖

고 본격적인 서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설된 뭍바이 지부의 지부장에는 지난 33년동안 한국선급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해 온 송성욱씨가 임명됐다.

이날 오공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선급의 인도 뭍바이 지부 설립을 통해 인도에서 급증하고 있는 검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인도 해사업계와 한국선급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지금까지 인도 해사업계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 높은 대고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선급의 인도 뭍바이 지부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지역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선급은 현재 전 세계 주요 항구에 44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개의 해외지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선급 인도 뭍바이 지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 B/403, Raylon Arcade, Ram Krishanan Road, Kondivita, Andheri (East), Mumbai 400 059/ 전화 : +91-22-4215-2040~1/팩스 : +91-22-4215-2042/이메일 : kr-mpi@krs.co.kr

## 한국해양대학교

교육성과지수 전국 1위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교육성과지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지원금액이 총 4,959억 원 규모인 ‘2009년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학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4년

제 대학 88곳, 전문대학 96곳 등 18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4월20일 한국해양대학교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대학 88곳 대학의 대학별 지원금액과 대학정보공시에 나와 있는 재학생수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해양대의 교육성과지수가 추정치 0.80으로 울산대학교와 함께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국해양대는 이번에 지원금이 37억9,900만원으로 울산대의 지원금 54억7,000만원 보다 적지만 재학생수가 6,302명으로 울산대의 재학생 1만 2,843명 보다 적어 교육성과지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성과지수 3위는 경북대(0.78), 4위는 포항공과대(0.76), 5위는 건양대와 부산대, 금오공과대(0.75) 등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해양대의 성과는 국내 최고의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으로서 다른 대학 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성과지수는 대학의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수준,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6개 항목에 수치를 대입해 산정하는 지표로서, 지원대학 선정과 지원금액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경쟁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해양대는 또 대학별 지원금을 재학생수로 나눈 재학생 1인당 지원금도 60만2,825원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 중 재학생 5,000~1만명 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56만9,530원인 금오공과대로 나타났다. 한국해양대의 재학생 1인당 지원금은 부산대 33만9,071원, 부경대 32만9,193원 보다 2배가량 많은 액수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원양산업협회와 MOU 체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강종희)이 4월7일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장경남)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수산 및 원양산업 관련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조사, 정보자료 제공 등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종희 원장은 우리나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수행할 연구과제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 한국해운조합

### 선주배상책임보험(P&I) 설명회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이 4월28일부터 각 지역을 순회하며 선주배상책임보험 갱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8일 울산지역을 시작으로 29일 부산, 여수, 인천지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보험계약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해상보험 및 P&I시장 동향과 조합 선주배상책임보험(P&I) 효율운영계획은 물론,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 용선자의 책임범위 등 선박 운영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해운조합은 2009년도 IGA(P&I Club) 갱신 보험료가 평균 14% 인상되고 재보험 시장이 Hard Market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주배상책임보험(P&I)의 보험료에 상당한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Loss Record 및 조합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등을 Lloyd 재보험자에 충분한 상

호이해를 같이하여 최적의 재보험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해운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 자체진척경영을 통해 관리비용 등을 최소화하여 기본보험료 인상율은 평균 5%로 하고 무사고 할인율을 확대하여 평균 10%의 할인을 적용,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여 선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 선주배상책임보험(P&I) 가입선박 900여척에 대한 계약기간이 오는 5월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운영방법 및 담보범위, 재보험 구성, 보험료 수납방법, 담보범위 선택 Guarantee(보증장) 발급 및 제공, 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등 조합 선주배상책임보험(P&I)의 특성을 상세히 안내했다.

한편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재계약에 따른 신규 계약기간은 오는 5월 16일부터 2010년 5월 15일이다.

## 해양문화재단

### '제4회 대한민국해양사진대전' 개최

5월31일까지 해양을 주제로 한 '제4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이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올해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기원을 위한 특별상부문이 신설되는 등 전년 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어 개최된다.

국내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의식, 해양관광, 해양환경과 오염, 해양산업, 해양레포츠 등 해양과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하는 사진이라면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이번 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5편 이내의 미발표작을 11×14인치 크기로 인화해 5월 31일까지 해양문화재단(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 인의빌딩 901호, 02-741-5278-9)으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표현의 독창성, 예술성, 소재와 목표의 적합성, 표현능력 및 개념의 구체화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6월 10일경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국무총리 시상의 대상 500만원(1명)을 비롯해 ▲금상 300만원(2명), 이번에 신설되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특별상 300만원(1명), ▲은상 200만원(2명), ▲동상 100만원(7명), ▲입선 20만원(37명), ▲특선 20만원(20명) 등의 상금이 주어진다.

제4회 대한민국해양사진대전은 해양문화재단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11개 기관·단체에서 후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o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노사 화합 공동선언문' 발표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은 4월14일 공단 경영진을 포함한 노사협의회 각 위원과 배석직원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생을 위한 '노

사 화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는 공단 사용자위원 대표(이용우 이사장)와 근로자위원 대표(강홍목 과장)는 '노사 화합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맞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하고 건설적인 조직변화와 단합된 조직 구성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문 발표를 통해 공단은 노사협의회 및 CEO와의 열린 대화창구를 적극 활성화하여 노사 공동발전과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및 근로자의 자기개발로 조직 업무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상호 노력하며, 꾸준한 인적자원 개발 및 노사문제를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동일 장소에서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온 노사협의회 위원 및 배석 직원들은 노사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열띤 토론을 통해 상호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상호간의 애로사항과 고충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토로함으로써 노사간 신뢰를 구축하고 노사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 노조는 지난 1월21일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여 현재 별도의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노사현황사항에 대하여 협의해 오고 있으며 12개 지사를 둔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 전 지사의 노측 대표를 노사협의회에 참석시켜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 없이 협조체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